

## 한국어, 독일어, 영어에 나타난 색깔의 상징의미(II)\*

- 빨강, 노랑, 초록 -

조영수(경기대)

### I. 서론

한국어, 독일어, 영어에 나타난 색깔의 상징의미(I)<sup>1)</sup>에서 도출된 결론은 언어상징은 색깔 이미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과 언어 상징보다는 문화상징이 그 나라 사람의 색깔 이미지에 영향을 더 미치는 것으로 여겨지며 수정된 <언어적 결정론>에 동의한다는 것이었다.

색채와 상징의 관계는 결국 언어와 문화, 언어와 사고의 관계에 이르게 된다. 하양과 검정의 상징의미에서 내린 결론이 빨강, 노랑, 초록에서도 적용되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인간은 대략 300만개의 색깔 음영을 인식하고 구별할 수 있으며 한 언어에서 가능한 색채명칭 혹은 색채표현의 수는 많이는 천 개 정도에 이르지만 단지 9-11개의 색채명칭만이 사전에 수록되어 있다고 한다.<sup>2)</sup> 의학자인 J. Erblöh는 '색채란 인류의 고대로부터 내려온 욕구이며 인간이란 색깔을 즐기고 창조해내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다. 또 화가이면서 동시에 신비주의를 지향하면서 예술론을 집필하였던 V. Kandinsky가 가장 강조한 요소도 색채였다. 그에게 색채란 물리적이면서 심리적 효과를 주며, 시각뿐만 아니라 촉각마저도 일깨워 주는 것이었다. 그는 파란색은 천국의 색이며 순수함을 동경하는 색이라 하였고, 노란색은 지상의 색이며 삶오함이 결여된 색이라 하였다. 그리고 초록은 수동적이며 중산층의 자기만족을 드러내고, 색이란 흰색에서 시작되어 검정으로 끝난다고 하였다. 색채와 악기를 비유하면서 연한 파랑은 플루트, 짙은 파랑은 첼로와 흡사하며, 초록은 바이올린의 중간 음색과 같다<sup>3)</sup>고 했다. 최

\* 이 논문은 2003년 경기대학교 학술 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한국어, 독일어, 영어에 나타난 색깔의 상징의미(I)-하양과 검정 : 독일문학 84집, 2002.

2) Vgl. Csaba Földes(1991: 77).

3) Vgl. 김영나(1997: 205).

초의 색채심리학자로 간주되는 Goethe는 색채란 눈을 통하여 인간의 마음에 항상 중요한 효과를 불러일으킨다고 말하면서 이 효과는 직접적으로 인간의 풍속과 연결된다고 생각했다.

문화와 색깔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Goethe는 <색채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미개인, 야만인, 아이들은 가장 강렬한 힘을 지닌 색, 특히 주홍색을 좋아한다. 또한 알록달록한 색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알록달록한 것은 색채가 조화된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나란히 놓였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sup>4)</sup>

또한 나라에 따라 선호하는 색깔이 다르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분위기를 불러일으키는 색깔은 분위기와 상황에 순응하기도 한다. 활기에 넘치는 민족, 예를 들면 불란서인들은 강렬한, 특히 활동적인 면에서 강렬한 색을 좋아하는 반면에 영국인과 독일인은 보리 짚 노랑 혹은 갈색인 파혁색을 선호하며 짙은 파란색을 즐겨 입는다. 위엄있게 차리고 싶어하는 이태리 사람과 스페인 사람들은 붉은 색깔의 외투를 즐겨 입는다.”<sup>5)</sup>

나라마다 특색이 있는 색채선호도와 색채의 의미는 언어에서 어떻게 나타나며 이것은 문화상징과 연관이 있는 것일까?

1950년대 초반부터 1960년 중반에 이르기까지 색채연구의 전통은 색채 스펙트럼은 연속된다는 것이었으며 또한 언어가 사고를 형성한다(Sprache bestimmt das Denken)는 언어결정론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므로 전통적인 색채연구는 인간이 빛의 스펙트럼을 그 자신의 언어로 구별하여 나눈다는 Whorf의 가설을 옹호하는 증거로 사용되었다. 이 분야의 연구에서 색채형용사는 가장 많은 논증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많은 인류학자와 언어학자들은 Sapir-Whorf의 가정에 대한 찬반을 염두에 두고 색채에 대한 연구를 했으며 이 시기의 주된 흐름은 언

4) Johann Wolfgang von Goethe, Goethe Werke Band 13, Naturwissenschaftliche Schriften I, Hamburger Ausgabe in 14 Bänden, Trunz, Erich(Hrsg), Siebente, überarbeitete Auflage, München(1975: 506).

5) Vgl. Johann Wolfgang von Goethe(1975: 507).

어의 의미체계는 개별 언어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Whorf의 이론이란 언어사회가 다르면 현실을 언어적으로 파악하는 방법도 완전히 다르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다음은 그의 결정론의 요지이다.

한 개인은 세계를 자신의 언어라는 프리즘을 통하여 볼 수밖에 없다. 자신의 언어가 개념화 한 것만을 개인은 경험할 수가 있다. 언어외적인 현실은 우선 미분화된 채로 있다가 언어에 의하여 비로소 분류되고 조직화되어진다. 「...」 언어에는 대상을 규정하는 기능이 있다.<sup>6)</sup>

Berlin과 Kay(1969)의 논문은 이 분야의 연구 방향에 큰 전환점이 되는데 색채공간에서 어떤 '초점'영역은 인간의 지각체계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기본 색채용어의 핵심을 형성하고 언어와 문화에 상관없이 더 기억하기 쉽다는 것 이었다. 또한 98개 언어에서 색채형용사의 발달이 유사한 과정을 밟고 있음을 밝힌 것이다. 1969년 이전의 연구는 Whorf의 언어 상대성이론을 지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1969 이후의 연구는 이 가정을 의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인간의 언어와 사고 방식에는 보편성이 있다는 결론에 찬성하는 것이다.<sup>7)</sup> 그러나 Lucy와 Shweder(1979)는 실험을 통하여 Whorf의 가설을 재 인정하는 결론<sup>8)</sup> 즉 색채를 기억하는 문제를 논하면서 각기 다른 언어란 다른 형태의 인식(recognition)을 유도하게 된다<sup>9)</sup>고 한다.

반면에 Whorf의 가설인 언어가 비언어적인 인식체계와 문화체계를 형성한다는 생각에 반대되는, 오히려 문화가 언어에 영향을 준다는 논문을 Hill과 Hill(1997)이 내 놓고 있다. Moss(1989)는 Berlin과 Kay의 기본 색채 용어라는 개념은 어떤 언어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신경생리학적인 요소와의 관련성은 보여주지만 부차적인 색채용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sup>10)</sup>

6) Vgl. H. Pelz(1987: 36).

7) Vgl. 김진우(1996: 246).

8) Vgl. Lucy and Shweder(1979: 604), "In summary, language appears to be a probable vehicle for humancolor memory, and the views developed by Whorf are not jeopardized by the findings of any color research to date.

9) Vgl. J. Lucy/R. Shweder(1979: 601).

10) Vgl. Moss(1989: 313).

영어, 독일어, 한국어에 나타나고 있는 색채형용사가 포함된 숙어와 관용어의 의미와 문화상징을 비교하고, 앙케이드를 통하여 세 나라 사람들이 느끼는 색채에 대한 연상을 관련시켜서 그 결과가 Whorf의 언어결정론에 부합하는지를 밝히는 데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을 두고자 한다.

## II. 본론

색채연구에 관한 서적에서 그 나라 모국어 사용자가 아니면 수긍이 가지 않는 서술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색채를 가지고 사람들의 성격과 행동을 여러 관점에서 관찰하고, 사람들을 특징에 따라 4 그룹(빨강, 파랑, 하양, 노랑)으로 나눈 Taylor Hartman은 그의 책 『The Color Code』<sup>11)</sup>에서 사람들의 성격을 파악하는데 컬러 코드를 사용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라고 말하고 있다.

“색채는 감정과 행동에 대한 이미 인정된 메타페이기 때문에 성격을 분석하는 데 색채코드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는 화가 날 때 ‘붉게 본다 see red’, 그리고 슬플 때는 ‘우울함을 느낀다 feel blue’. 이 색채코드를 성격에 사용함으로써 독자들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행위 뒤에 있는 동기를 볼 수 있게 된다. . . .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은 자신 속에서 인생의 모든 색깔 중에서 가장 좋은 색을 구체화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sup>12)</sup>

이 내용에서 눈에 띄는 점은 한국인은 슬플 때 전혀 ‘푸르게’ 느끼지 않는다. 또한 화가 났을 때도 ‘붉게’ 보지 않는다. 한국인은 지나치게 피로하여 기진맥진 할 때 하늘이 ‘노랗게’ 되는 것을 느낀다. 그러나 이런 표현은 전혀 외국인에게는 가슴에 와 닿지 않는다.

흥미 있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색깔이 주는 연상과 감각은 다른 나라에서도 동일하리라는 가정을 한다는 것이다. 위의 글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학자들의 색깔에 대하여 갖고 있는 연상과 감각은 한국사람들의 연상과 상이하다. 이

11) Taylor Hartman, *The Color Code, A New Way to See Yourself, Your Relationship, and Life*, Fireside, New York(1998).

12) T. Hartman(1998: 17).

논문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미국인 교수, 독일인 교수들을 비롯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색깔이 포함된 숙어의 뜻을 물었을 때, 대답을 한 후에 대부분이 그러한 숙어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사용해 왔다고 말했다.

실제 언어에서 색채의 의미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세 언어에서 나타나는 색채형용사를 의미에 따라 분류하기로 한다.

#### ■·강13)14)15)16)

13) Vgl. 이남덕(1985: 39f). “한국어의 색채표현은 풍부한 것이 한 특징을 이루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붉은 빛에 대한 표현은 자음, 모음교체와 접두, 접미어의 첨가로 인하여 가장 다채롭다. 변화형을 보면 아래와 같다.

1. 빨갛다	2. 벌겋다	3. 불그대대하다	4. 불그데데하다
빨강(이)	벌경(이)	불그댕맹하다	불그댕명하다, 불그랭뎅하다
빨그대대하다	벌그데데하다	불그레하다	불그레하다
빨그댕댕하다	벌그댕댕하다	불그름하다	불그름하다
빨그래하다	벌그레하다	불그무래하다	불그모래하다
빨그무래하다	벌그무래하다	불그속속하다	불그숙숙하다
빨그속속하다	벌그름하다	불그스레하다	불그스레하다
빨그숙숙하다	벌그숙숙하다	불그스름하다	불그스름하다
빨그스레하다	벌그스레하다	불그죽죽하다	불그죽죽하다
빨그스름하다	벌그스름하다	불긋 불긋, 불긋하다	불긋 불긋
발그죽죽하다	벌그죽죽하다	뿔굿 뿔굿	뿔굿 뿔굿
발긋발긋	벌긋벌긋	뿔그스름하다	뿔그스름하다
빨갛다,	빨겋다,		
빨강(이)>빨갱이	빨경(이)>빨챙이		
빨그스름하다	빨그스름하다		
빨긋 빨긋	빨긋 빨긋		
셋빨갛다	싯뻘겋다		

‘붉다’의 여러 어형은 붉은 빛의 성질과 정도의 차이에 따라 접미부의 첨가를 달리하여 어감을 나타내거나와 위와 같이 네 군으로 모음에 따라 나누는 것은 한국어의 음성장징(onomatopoeia)을 나타내는 것이다. a: o: u의 양:음 상대, a: o, : u의 대:소 상대로 하여 네 개의 틀을 이룬다 그리고 어두자음의 경음화는 표현의 강도를 더하는 구실을 하는 듯하며, 여기서는 관용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빨갛다, 빨긋빨긋」 등에만 경음 표시를 했으나 위의 어떤 어형에도 경음화는 허용적인 현상이다. 여기 보인 40여 표현의 경음화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표현의 다양성을 배로 늘리는 말이 된다. 마지막으로 접두어의 첨가는 가장 강렬한 표현이 「셋-빨갛다, 싯-뻘겋다」에만 한정되어 쓰인다. 「셋-, 싯-」은 음:양 표시의 이형태를 이루고 있다. 다른 색채표현에도 이 두 가지 표현이 대비를 이루고 있다.“빨강은 ‘붉다’는 색채어휘에서 파생되

## i) 많은, 대단히

영.(AE) *it's worth not a red cent* '전혀 가치가 없다'<sup>17)</sup>

독. *keinen roten*<sup>18)</sup> Heller '일전 한푼도 없음, 전혀 없음'

었으며 「붉다」는 \*pVlk-이며 근본의미는 「가르다」와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기본어가 하나는 '열다'의 의미로 하나는 '맑다'의 의미로 발달한 것이며 「붉다」라는 색채표현은 「밝다」라는 빛과 색을 겸한(光色未分化)표현에서 나왔다고 밝히고 있다. 「分-開-明-赤」으로 발달한 것이다. Vgl. 이남덕(1985: 49).

- 14) 뺄강은 「붉다」 즉 「불」에서 유래한다. 우리말에서는 색은 모두 현상에 이름을 부친 것이다. 「빨갛다」, 「시뻘겋다」, 「빨간」 이외에도 「적(赤)」, 「홍(紅)」, 「다홍」이 모두 뺄강을 의미한다.
- 15) Vgl. Johann Wolfgang von Goethe(1966, Band XIII:460), 독일어 단어 중에 어원을 알 수 없는 단음절 색채이름으로 노랑, 파랑, 뺄강, 초록을 거명하면서, 이 4가지 색은 가장 보편적인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덧붙여 얼룩진 정도를 나타내기 위하여 역시 단음절인 Schwarz, Weiß, Grau와 Braun을 말하면서 이 8가지 색채명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상당히 충분히 표현할 수 있다고 한다. 흥미있는 것은 Goethe가 말한 8가지 단음절의 색채명이 Kay와 Berlin의 7단계의 색채순서에서 말한 기본 색과 동일하다는 것이다. Berlin과 Kay가 순수한 우리말인 색채명으로 꼽은 5가지: 「빨갛다, 파랗다, 노랗다, 하얗다, 까맣다」와 비교된다.
- 16) 뺄강의 의미에 관한 분류로 D. Dobrovolskij와 E. Piirainen에 따른 것은 i)많은, 대단히 ii)중요한, 특별히 iii)좋은, 아름다운 iv)나쁜 v)건강한 이다. vi)무의미한, 공식적인 vii)야간의, viii)여자 ix)공산주의, 사회주의 x)완전히, 순수히 xi)경고는 저자의 생각에 따른 것이다. Gottfried Rottmans는 영어의 'red'가 지난 중립이거나 긍정적인 내용과 부정적인 내용의 표현으로 대별하면서, 긍정적인 내용에는 i)긴급함과 중요함 ii)건강한, 헛빛에 탄 갈색과 삶의 힘 iii)금(金)과 동(銅) iv)상업적인 영역 v)인종의 표현 vi)병 vii)음료수 viii)영양분, 음식 부정적인 내용에는 i)육체적임, 정열 ii)강한 감정의 움직임 iii)전쟁, 힘, 폭력, 정치적인 극단 주의 iv)위험신호 v)별명 vi)상업 부기등에서의 의미를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D. Dobrovol'skij와 E. Piirainen의 ii)와 iii)에 속하는 red carpet과 red letter day는 R. Gottfried에서 긍정적 의미 i)에 포함된다.
- 17) 많은 관용구에서 「뺄강」은 「대단히, 많은」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예에서 볼 때 돈과 관련되어서 「뺄강」은 역사적으로 흰색의 은전과 구별되어서, 거의 가치없는 동으로 만든 동전을 뜻하고 있다.(vgl. 독일어 고어인 weißpfennig '은전이고, 영어의 red cent는 미국과 카나다에서 1센트짜리의 동전이다. 공식적으로 위의 예에서 「뺄강」의 기능은 특별히 '완전히 한푼도 없음'이라는 부정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Vgl. Dobrobol'skij/Piirainen(1997: 260).
- 18) 독일어의 rot은 lat. *ruber*, griech. *erythros*와 같은 어군에 속하며 붉은 철(Eisenerz), 녹(Rost), 피 등이내는 색깔이다. Vgl. Helmut Gripper, "Die Farbe als Sprachproblem", In: Sprachforum Zeitschrift für angewandte Sprachwissenschaft(1), 1965: 139.

독. *es ist nicht einen roten Cent wert* ‘전혀 가치가 없다’

한. 붉으락푸르락하다. ‘화가 단단히 나다’

ii) 중요한, 특별한, 좋은

영. *roll out the red carpet* ‘귀빈 대우를 하다’

영. *red carpet* ‘(환영 따위가) 정중한, 열렬한’

영. *red ticket* ‘죄수를 방문할 수 있는 허가’<sup>19)</sup>

영. *a red-letter day* ‘휴일, 기쁜 날, 행운의 날’

독. *der rote Faden* ‘(모티브등의) 일관된 중요한 맥락’<sup>20)</sup>

독. *den roten Teppich ausrollen (für j-n)* ‘귀빈대우를 하다’

붉은 카펫은 국賓에 대한 성대한 영접의 표시로서 사용되었다. 푸르거나,

노란 카펫이 아니라 붉은 카펫을 깐다는 것은 붉은 색이 중요한 것, 특별

함의 상징적인 의미를 지님을 뜻한다.<sup>21)</sup>

독. *sich etw. rot im Kalender anstreichen* ‘어떤 날을 특별히 주목하다, 주  
의할 만한 날로 기억에 새기다’

독. *ein Rot-Buchstaben-Tag* ‘휴일, 기쁜 날, 행운의 날’

한. 이왕이면 다홍치마이다<sup>22)</sup> (속) ‘같은 값이면 색깔이 좋은 치마를 택하듯  
이 동일한 조건이라면 좀 더 좋은 것으로 고른다’

한. 색시 그루는 다홍치마 적에 앉혀야 한다 (속) 1) 자기 아내되는 사람의  
버릇을 잡으려면 다홍치마를 입은 새 색시 때에 범을 세우고 단단히 길  
을 들여야 한다. 2) 사람을 가르칠 때에는 처음부터 엄하게 잘 가르쳐야  
한다는 말

19) Vgl. Gottfried, Rottmann(1965: 39), Das Farbwort “red” im britischen und amerikanischen Englisch(1) In: Lebende Sprachen(12) S.39 영어의 red ticket의 의미는 독일어의 rote Karte 와 뜻이 다르다.

20) rote Karte는 Goethe의 “진화력”에서 기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적을 것이다. 이 표현은 한편에서는 신호색으로 ‘빨강’(녹색 실이나 노란색 실이라면 중요함, 특별함을 뜻하는 기능을 갖지 못했을 테고)에 근거하고 있으며 또 다른 편으로는 개념적인 은유인 ‘생각은 선적인 과정이다’(den Faden verlieren ‘생각의 연결을 잃다’)에 근거를 둔다“

21) Vgl. Dmitrij Dobrovolskij & Elisabeth Piirainen(1997: 124).

22) 다홍색은 절은 붉은 빛을 뜻한다. 다홍, 다홍빛, 진홍색 모두 같은 색깔이다.

## iii) 환락, 홍청거리

영. *paint the town red* ‘하룻밤을 홍청거리며 잘 보내다’

영. *the red light district* ‘창녀들이 있는 지역(흔히 붉은 불빛으로 암시됨)’

독. *die Stadt rot malen* ‘(하룻밤을) 대단히 난폭하고 분방하며 떠들썩하게 보내다’

한. 홍등가

## iv) 나쁜

영. (BE) *see the red light* ‘위험을 예견하다, 위협적인 위험을 인식하다’

영. (*make sb*) *see red* ‘격노하다, 살기 차다’

영. *red flag term* ‘분노, 호전, 방어 등과 같은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말; 선동적인 표어’<sup>23)</sup>

영. *be in the red*(구) ‘적자를 내고 있다’

영. *red light* ‘적(위험)신호’

영. *crafty as a redhead* ‘사악한, 기만적인, 교활한’<sup>24)</sup>

독. *das rote Licht sehen* ‘위험을 예견하다, 위협적인 위험을 인식하다’<sup>25)</sup>

독. *das wirkt auf ihn wie ein rotes Tuch* ‘그 사람을 분노하게 하다. 화나 게 하다(투우에서 소가 붉은 천을 보고 덤벼드는 것처럼)’

23) 붉은 깃발은 오랫동안 혁명적인 반란자들의 상징이 되어왔다. to wave the red flag 은 폭력을 자극한다. 게다가 투우에서 붉은 케이프를 흔들면 소가 화를 내게 된다고 믿어져 왔다. 이런 여러 가지 사용이 서로 연관되어서 붉은 깃발은 선동적인 말을 묘사할 때 형용사적으로 쓰이게된다. Vgl. L. Urdang(1985: 418).

24) 이 표현은 일반적으로 예수를 배반한 유다의 교활함과 연관된다. 이 전설적인 배반 이후에 붉은 머리는 유다를 연상시킴으로 불행한 희생자가 되었다. 이 믿음은 중세에 더욱 힘을 얻게 되었는데, 이 시기에는 죽은 붉은 머리 사람의 지방이 독약을 만드는 성분의 하나로 여겨졌기 때문에 수요가 많았다. 유사한 표현으로 *cunning as a red-haired person, cunning as a redhead*가 있다. Vgl. L. Urdang(1985: 685).

25) 죽음을 나타내는 상복으로 서양에서는 검은 색을 입는데 반하여, 중국에서는 내세의 행복과 번영을 뜻하는 흰색을 입는다. 집시들은 생명과 에너지를 상징하는 붉은 옷을 상복으로 여긴다. 웨일족은 붉은 색을 상복으로 입으며 이 붉은 색은 죽음을 뜻함과 동시에 재앙의 예고도 의미한다. 여기서 이 숙어의 의미가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이슬람교에서는 정의로운 사람의 영혼을 흰 새 모양으로 상징하였으며, 이것이 중세 시대 유럽으로 건너갔다. 영국에서는 검은색이 상복으로 사용되기 전에 장례식에 흰색을 입는 관습이 있었다. 세계상식백과 p. 299.

독. *jm die rote Karte zeigen* ‘누구에게 확실한 경고를 하다’ 심판관이 규칙을 어긴 선수에게 주는 빨간 카드를 뜻한다.

독. *rot sehen*(구) ‘매우 화가 나다’

독. *rote Zahlen* ‘적자’

한. 적자

v) 현장에서, 즉석에서

영. *catch somebody red-handed* ‘어떤 사람을 현장에서 붙들다’

독. *j-n rothändig fangen* ‘어떤 사람을 현장에서 붙들다’

vi) 건강한, 살아있는

영. *red blood* ‘신체적인 힘, 비정상적인 활발함’

영. *red blooded* ‘약하거나 지친 후에 건강이나 힘을 회복하게 된’

영. *red meat* ‘더 힘이 있는, 혹은 거친 재료(쇠고기 혹은 양고기를 닭이나 송아지 고기 같은 소화가 잘되는 것과 대조하여); 실제 정치; 모험; 파워 게임’<sup>26)</sup>

영. *red neck* ‘1) 시골서 노동하는 계층의 사람’, ‘2) 특히 가난한 남부 노동자’, ‘3) 영(口)로마 카톨릭 교도’

독. *heute rot, morgen tot* ‘인생은 짧고 망가지기 쉽다(verletzbar)<sup>27)</sup>

한. 백일(百日) 붉은 꽃 없고 천일(千日) 좋은 사람 없다(속) ‘백일 동안 시들지 않은 꽃이 없듯이 사람의 행보도 영원히 계속되지 않는다’

한. 흥안(紅顏) ‘혈색이 좋은 얼굴’

vii) 무의미한, 공식적인

영. *red tape* ‘(영국에서 공문서 묶는데 쓴 빨간 끈에서) 의미없는 공식적인 서류, 일을 지연시키는 모든 것, 관료적 형식주의’<sup>28)</sup>

영. *redtap(e)ism, redtapery* ‘관료적 형식주의’

영. *redtapist* ‘관료적인 사람, 번거러운 형식을 따지는 사람’

26) Vgl. A. Cowie/R. Mackin/I. McCaig(1983: 478).

27) 독일어에서 ‘빨강’이, 이 속담이외에 ‘싱싱한, 건강한, 살아 있는’의 의미를 지닌 경우는 없다.

28) 흥미있는 점은 G. Rottmann의 수많은 영어의 ‘red’ 표현에 *red tape*이 없다는 것이다.

## viii) 야간

영. *red-eye flight* ‘야간비행’

영. *red-eyer* ‘redeye special(심야 야간 비행편) 이용자’<sup>29)</sup>

영. *red message* ‘(전보)야간 메시지’<sup>30)</sup>

## ix) 여자

한. 흥일점(紅一點) ‘많은 남자들 중에서 하나뿐인 여자를 이르는 말’

## x) 공산주의, 사회주의

영. *red-bait* ‘공산주의자를 색출하다. 공산주의자라 하여 탄압하다’<sup>31)</sup>

영. *red hunt* (속) ‘빨갱이 사냥’

영. *red flag* 붉은 기, 적기(赤旗)(혁명, 위험, 신호, 개전을 표시함)

영. *Reds under the bed* ‘서구 민주주의에 위협으로 간주되는 공산주의자, 좌익 행동주의자’

독. *Rot-Grün* ‘독일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을 뜻함’

독. *die Rote Fahne* ‘적기(赤旗)(바이마르 시대부터 나치 시대에 걸친 독일 공산주의 기관지)’

독. *er ist ein Roter* (口) ‘그는 공산주의자이다 (빨갱이다)’

독. *die rote Revolution* ‘적색혁명’

독. *die rote Armee* ‘붉은 군대(1918년부터 1946년까지의 구 소련군의 공식 명칭, 적군)’

한. 적군(赤軍) ‘소련군’

한. 빨갱이 ‘공산주의자를 속되게 이르는 말’

한. 적화(赤化) ‘공산주의자에 물듬, 공산주의자가 됨’

한. 적화(赤禍) ‘공산주의자로 말미암아 입은 화’

## xi) 완전히, 순수히

한. 새빨간 거짓말이다. ‘전혀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다’<sup>32)</sup>

29) 영. *red eye*는 또한 '(미)싸구려 위스키, 토마도 주스를 섞은 맥주'를 뜻한다.

30) Vgl. G. Rottmann, a.a.O., 39. 영. *red message*를 ‘중요함, 긴박함’으로 파악하여 i)에 넣고 있음. 영. *redeye* ‘독한 위스키’, ‘프라이한 달걀’, ‘두꺼운 햄 그레이비’, ‘케첩’으로 음식물과 음료항목에 넣고 있음.

31) 흔히 사용되지 않는 표현이라고 함. 영. *red goods*, *red hunt* 등이 속한다.

32) 새빨간 거짓말은 공감각적인 의미 전이가 일어난 전형으로 배회임 교수는 보고 있

한. 새빨간 불상놈이다 '1) 상놈 중에도 가장 못 배운 상놈이라는 말 2) 가정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벼룩없이 구는 사람이라는 뜻'

한. 적수단신(赤手單身) '(맨손과 홀 몸이란 뜻으로) 가진 재산도 없고 의지 할 일가붙이도 없는 외로운 몸. 홀홀단신이 더 많이 사용된다'

한. 적빈(赤貧) '매우 가난함'<sup>33)</sup>

한. 적나라(赤裸裸) '몸에 아무 것도 걸치지 않은 발가벗은 상태라는 뜻으로 숨김이 없는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남'

한. 적자지심(赤子之心) 1)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는 백성의 마음 2) 갓난 아이 같이 거짓이 없는 마음

xii) 책략

영. *red herring* '주의를 딴 데로 돌리는 수작 혹은 틀린 방향으로 이끄는 실마리, 가짜 단서'<sup>34)</sup>

xiii) 색깔 자체

영. *have a red face* '당황하여 부끄러워하거나, 잘못을 깨닫고 부끄러워하다'

영. (as) *red as a turkey-cock* '화가 나거나 당황하여 얼굴이 붉어진(칠면조 수컷의 윗 벗이나 아래로 늘어진 벗은 칠면조가 흥분하거나 화를 낼 때 눈에 띄게 붉어짐)'

한. 얼굴이 빨개지다 '당황하거나 잘못한 것을 깨닫고 얼굴이 상기되다'

한. 흥진(紅塵) '1)붉게 일어나는 먼지 2)번거러운 세상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

---

음. 일차적으로 빛깔의 의미가 퇴색된 것으로 보고 있음(예; 분홍빛 로맨스, 새파란 젊은이, 싸늘한 목소리 등).

33) '적빈'과 대조되는 말로 청빈(淸貧)이 있지만, 이 경우에 '청'은 '푸르다'는 의미 보다 '깨끗하다'는 의미이다.

34) 17세기에 개 조련사는 사냥개의 후각을 더욱 강하게 하기 위하여 이 연습을 개에게 시켰다. 원래의 냄새에 효과를 더하게 하거나 냄새를 없애기 위하여 훈제 연어를 여우가 지나간 자리에 끌고 다녔다고 한다. 이 용어가 비유적으로 사용되기는 19세기 후반부터라고 한다. Vgl. L. Urdang(1985: 510).

노랑 35)36)37)

i) 질투하는, 시샘하는

독. *gelb vor Neid werden; grün und gelb vor Neid werden* ‘질투로 눈 앞  
이) 깜깜해지다’<sup>38)39)</sup>

독. *jm. der gelbe Neid im Gesicht stehen*(fig) ‘무섭게 질투하다, 화가나다’

ii) 나쁜

영. *the yellow press* (선정적이며 배타적인 신문: 미국과 스페인전쟁 때의  
미국신문에서 유래함)

영. *yellow journalism* ‘홍미위주의 저질 언론’

영. *yellowback* (BE) (古) ‘노란표지판 (19세기 중엽의 선정소설) : 프랑스의  
값싼 소설(노란표지)’

영. *yellow dirt* (AE)(俗) ‘돈’

영. *yellow alert* ‘큰 위험이 올 것을 대비하는 상태(red alert보다 덜 심각하  
다)’

영. *yellow contract* (AE)(俗)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조건하의 노사  
간의 고용계약’

영. *yellow dog under the wagon* ‘믿을 수 없는, 신뢰할 수 없는 ; 잘못된,  
변덕스러운’<sup>40)</sup>

35) ‘누르다’는 ‘눈(놋)’에서 나옴. 우리나라 색깔의 명칭은 모두 현상에 이름을 부친 것임.

36) 한국어에서 노란색을 말할 때 다양한 표현이 존재한다 ; 노렇다, 누렇다, 누르팅팅  
하다(특히 얼굴을 말함), 누르끼리하다, 누르스름하다, 노르스름하다, 노리끼리하다,  
누르죽죽하다, 누렇다, 셋노랗다 등이다. 영어에는 yellow, yellowish 정도이며 더 세  
분화 될 경우 앞부분에 light 등 다른 수식어가 필요하다.

37) D. Dobrovolskij와 E. Piirainen는 노랑을 I)질투하는, 시샘하는 ii)나쁜 iii)겁쟁이,  
비겁한 iv)찢어지는, 쇠소리의 v)덜 익은, 무경험의로 분류하고 있으나 iv)의 해당  
전거은 일본어뿐이며 v)의 예도 러시아어와 일본어의 경우 뿐이므로 제외했다. iv)  
경고 v)인색한 vi)색깔 자체는 필자의 분류이다.

38) 독.gelb < germ.\*gelwa, “Galle, glühen, Glut, gleiten, Gold”와 연관됨, Vgl. Brockhaus-Wahrig(1981, III, 12).

39) 한국어는 질투로 눈 앞이 깜깜해졌다로 표현되나 독일어로는 gelb(und grün)으로  
말한다.

40) 오늘날 매우 드물게 듣게 되는 이 표현의 기원은 확실치 않지만, 미국에서 19세기  
내내 인기있는 표현이었다. 아마도 무슨 일이나 닥치는 대로하는 땜장이나 떠돌이

독. *die gelbe Presse* ‘황색지’

독. *gelber Journalismus* ‘홍미위주의 저질 언론’

독. *gelbe Gewerkschaft* ‘황색 노조, 어용노조’

독. *die gelbe Gefahr* ‘황화(黃禍)(황인종에 대한 백인종의 공포감을 나타내는 표현)<sup>41)</sup>

한. 황색신문 ‘개인의 비밀이나 추문을 폭로하는 따위의 홍미위주의 신문’

한. 쌈이 노랗다 / 쌈 수가 노랗다 ‘장래성이 없다’

한. 하늘이 노랗다 ‘지나치게 피로하여 기진맥진하다 또는 사태가 절망적이다’

iii) 비겁한, 겁많은

영. (AE) *be yellow-bellied/yellow-liberated /yellow<sup>42)</sup>* 1) 배가 노란, 2) 매우 불안하고, 겁많은, 비겁한’

영. *yellow scared* ‘겁먹은’

영. *yellow belly/ yellow* ‘겁쟁이, 비겁한<sup>43)</sup>

iv) 경고

영. *a yellow flag* ‘경고’

영. *yellow flag* 황색기, 검역기(국제신호)

영. *yellow card* ‘심판이 선수에게 경고할 때 보이는 황색 카드’

독. *die gelbe Karte* ‘경고’(구기 경기에서)

한. 옐로우 카드 ‘경고’

---

행상이 데리고 다닌 노란 개는 마차 밑에 서 모습을 드러내고 지나가는 행인을 물었을 것이다. 여기서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Vgl. L. Urdang/W.Hunsinger/N. Roche (1985: 237).

41) 정치적 구호임 1) 1900년 북청사변 이후 중국인과 1904/05년 일본인이 러시아에 승리한 후에 서방세계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함 2) 사회주의 혁명이후에 중국인을 서방세계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함. Vgl. Brockhaus-Wahrig(1981, III, 121).

42) 미국영어의 구어표현에서 *yellow*는 19세기 중반부터 ‘겁쟁이의, 비겁한’을 의미하고 있다. *yellow belly*보다는 *yellow-bellied*가 더 자주 사용된다. 노란 색이 비겁함을 연상하게 되는 이유는 알려져 있지 않다. 아마도 이 색의 내포의미인, 병약함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된다.

43) *yellow*는 ‘동양인’을 뜻하기보다는 ‘비겁하다, 겁쟁이’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고 미국인 교수가 말함.

## vi) 중요한

영. *follow the yellow brick road* '한 사람의 문제에 대한 단순한 그리고 놀랄만한 해결책을 발견하는 것; 삶의 문제로부터 신비한 도피책을 발견하다; 좋은 인생을 찾다'<sup>44)</sup>

독. *das Gelbe vom Ei sein* (口) 가장 좋다, 노른자위이다  
한. 노른자위이다 '(지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중심지이다'

## vii) 신출내기

독. *Gelbschnabel* 1)노랑 무리, 병아리 2)신출내기, 뜻내기(Vgl. *Grünschnabel*)

## viii) 인색한

한. 노랑이 '1)노란빛의 물건 2)털이 노란 빛깔의 개 3)몹시 인색한 사람'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sup>45)46)</sup>

ix) 색깔 자체<sup>47)</sup>

독. *Gelbbuch* '황서'(프랑스, 이탈리아의 외교문서)

독. *gelbe Suppe* '사치한 생활의 표현'

독. *die gelbe Rasse* '동양인(중국인, 일본인, 몽고인등)'

한. 황색인종(黃色人種) '동양인을 말한다'

한. 황소 1) '큰 수소, 황우(黃牛)' 2)기운이 세거나, 많이 먹거나, 미련한 사람  
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sup>48)</sup>

44) '오즈의 마법사'에서 yellow brick road를 따라가면 사람의 모든 어려움을 풀어 줄 수 있는 신비한 마법사가 살고 있는 애메랄드시에 이르게 된다. Frank L. Baum의 책인 *The Wonderful Wizard of Oz*는 1900년에 출판되었다. 그러나 이 표현은 쥬디 젤란드가 주연한 영화가 1939년에 나온 후, 1950년이 되어서야 인기를 얻게 되었다.

45) 몹시 인색한 사람을 일컫을 때 '노랑이' 보다는 '노랭이'가 더 흔한 표현이다.

46) 한국인의 의식 속에 노랑은 돈과 연관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또 다른 예를 탈북자들의 남한에 대한 인식에서 찾을 수 있다. 이북에서는 노란 색이 자본주의를 표현한다고 한다. 아마 한국인을 비하해서 표현할 때 엽전(葉錢)이라고 했는데, 이 엽전의 색깔이 노랑이었다. 이와 연관이 있으리라는 것이 필자의 추측이다.

47) yellow brick road 우리말 사전에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가는 불확실한 길'이라고 설명되어 있음. 이 말은 "Wizard of OZ"에 나오는 말이며 노란 벽돌로 만든 길이며 이 벽돌을 따라가면 목적지에 도달하게 됨.

48) 미련하고 고집 센 사람을 일컫는 말에는 '벽창호'가 있음. 벽창호의 본디 말은 벽창우(碧昌牛)이다. 벽창우는 원래 평안북도 벽동, 창성지방에서 나는 크고 억센 소를

한. 황소고집 49)

한. 황천(黃泉) ‘저승, 명부(冥府)’

한. 황천길 ‘황천으로 가는 길 즉 죽음의 길을 뜻한다’

초록 50)<sup>51)</sup>

i) 좋은

영. give somebody the green light ‘어떤 일을 승낙하다’

영. flourish like the green bay tree ‘번성하다; 확실하게 성공적이다(흔히 번성함이 일시적이거나 부당하다는 것이 암시되기도 한다)<sup>52)</sup>

영. the grass is (always) greener on the other side (of the fence)/ in the other man's field(격언) ‘사람들은 다른 나라, 다른 직업 등을 현재 자기 자신의 환경보다 훨씬 낫고 행복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독. es ist alles im grünen Bereich ‘모든 일이 제대로 되어있다, 정상적이 다, 제어가 가능하다’

독. grünes Licht geben<sup>53)</sup> ‘어떤 일을 승낙하다’

독. j-s grüne Seite(구) ‘누구의 원편에’,<sup>54)</sup> ‘...의 바로 곁에’<sup>55)</sup>

독. j-m nicht grün<sup>56)</sup> sein ‘누구에게 호감을 갖지 않다,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

---

말한다.

49) 황소고집은 황소의 2)뜻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50) i) 좋은 ii) 덜 익은, 경험없는 iii) 질투하는 iv) 많이, 대단히 v) 색깔 자체는 D. Dobrovolskij와 E. Piirainen의 분류이며 vi) 환경친화적은 필자의 분류이다

51) 영어에 초록은 green을 기본어로 하여 수식어로 olive, yellowish, avocado, lime, chartreuse, pea, military/army, dark, pastel, whitish, mint, blue green등이 합쳐서 초록을 표현할 수 있다. Vgl. J. Lucy/ R. Shweder(1979: 611f).

52) Vgl. A. Cowie/R. Mackin/I. McCaig(1983: 192).

53) 독. grünen Zweig와 grünes Licht geben에 대한 주 139의 의견은 Dmitrij Dobrovolskij & Elizabeth Piirainen(1997: 98)을 참조하라.

54) Vgl. W. Friedrich(1976: 739).

55) Vgl. 현대독한사전(1996: 2062).

독일어와 네델란드어에서 die güne Seite는 단순히 ‘die linke Seite’가 아니고 ‘좋은 자리’로 여겨지는 심장이 위치하는 왼쪽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Vgl. D. Dobrovolskij/E. Piirainen(1997: 276).

56) 독일어 grün은 griech. *chloros* 와 같이 어린 식물의 종류에 대한 다양한 명칭을 포함하고 있는 어군(語群)에 속한다. 이 말은 후에 다른 사물에도 적용되고, 추상적

독. *auf (k)einen grünen Zweig kommen*<sup>57)</sup> ‘경제적인 성공을 거두다(경제적인 성공을 거두지 못하다)’

ii) 성숙치 않은, 무경험의

영. (BE) *be still green to something* ‘일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서 투르다’

영. *be green as grass* ‘전혀 경험 없는, 소박한’<sup>58)</sup>

영. *be as green as a gooseberry* ‘전혀 경험 없고, 소박한’

영. *greenhorn* ‘경험 없는, 특별히 도시 출신의 사람이 농촌에 가서 사냥이나 농사일에 서투를 때 이 용어를 사용한다’<sup>59)60)</sup>

독. *noch sehr grün sein/noch zu grün sein für etw/ein grüner Junge sein* ‘경험이 상당히 없고, 미성숙하다, 아직도 풋내기다’

독. *noch grün in einer Sache sein* ‘아직 어떤 일에서 성숙치 못하고 경험이 없다’

독. *ein grüner (unerfahren) Junge* ‘새파랗게, 경험없는 젊은이’

독. *grün wie Gras sein* ‘전혀 경험이 없고, 소박한’<sup>61)</sup>

으로 사용되었다. Vgl. Helmut Gripper(1965: 139).

57) 독일어의 *grünen Zweig*와 *grünes Licht geben*의 경우에는 녹색보다는 ‘녹색 가지’와 ‘푸른신호’를 합쳐서 ‘성공’ 혹은 ‘허락’의 뜻이 되므로 녹색의 상징기능을 그 자체로 정의하기보다는 단어군으로 정의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이 둘의 경계 즉 단어자체인지 단어군인지 불분명하다. 녹색은 이 두 단어연속체내에서 어떤 상징적인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58) 한. ‘풋내기’가 ‘경험이 없고 미숙한’을 뜻한다. 김치, 야채 등이 덜 익었을 때 ‘풋내가 난다’는 표현을 사용한다.

59) 이 용어는 특별히 Karl May라는 독일작가가 즐겨 사용한 것이라 한다(Dr. Heins의 말). Karl May는 미국엘 한번 다녀 간 후에 많은 인디언과 미국을 소재로 소설을 썼음. 이 말을 영어에서 차용해서 사용했으나, 독일어화 되지는 못했다.

60) 소박한, 경험없는 혹은 단순한 사람; 잘 속는 사람 혹은 남에게 이용당하여 손해만 보는 사람; 이민자 혹은 신참, 제복입은 사람. 15세기에 *greenhorn*은 뿐이 아직 다 자라지 않은 어린 황소에 사용되었다. 1700년대에 이르기까지 이 용어는 투박한, 경험없는 사람을 의미했으며 18세기가 되어서 비로소 ‘이민(移民)온 사람’을 의미했다. 오늘날 이 말은 흔히 무경험자 혹은 의심하지 않는 사람을 언급할 때 경멸적으로 사용된다. Vgl. L Urdang/W Hunsinger/N Roche(1985: 383).

61) 독. *Dort war nur Gemüse*는 ‘그곳에는 단지 경험 없는 젊은 사람만 있었다’는 의미이다. 이와 비슷한 표현이지만 한국어에서 전혀 다르게 해석되는 표현이 있다. 즉

독. *so grün wie eine Stachelbeere sein* ‘전혀 경험이 없고, 소박한’

독. *noch grün hinter den Ohren sein*<sup>62)</sup>

독. *noch zu grün sein* ‘아직도 풋내기다’

독. *Grünschnabel* 신출내기, 풋내기<sup>63)64)</sup>

독. *Grünhorn* “ ”

독. *Grünling* 1) 검은 방울새 2) 무더기 버섯 3) 풋내기

독. *Grünsspecht* 1) 청딱따구리 2) 풋내기

독. *von grünen Tisch aus (ohne Kenntnis der Wirklichkeit) entscheiden*‘

(실제 경험이 없는) 탁상공론(회색ii)와 비교하시오)

한. 새파랗게 젊은 사람 ‘경험이 없는 젊은 사람’<sup>65)66)67)</sup>

iii) 질투심을 느끼는

영. *go/be green with envy* ‘대단히 질투를 느끼다’

영. *green-eyed monster* ‘질투, 선망’<sup>68)</sup>

독. *grün vor Neid werden*<sup>69)</sup>; *grün und gelb vor Neid werden*, ‘대단히

한. 풀밭이다 (구)는 식탁에서 반찬이 전부 식물성일 경우에 하는 말이다.

62) 이 표현보다 독. *noch nicht trocken (noch feucht) hinter den Ohren sein*이 ‘아직 풋내기이다, 미숙하다’의 뜻으로 더 많이 사용된다.

63) *Gelbschnabel*도 1.노랑부리, 병아리 2.풋내기, 신출내기를 뜻한다. 원래 어린 새의 부리가 노란색인에서 유래했다고 여겨진다.

64) 풋내기의 또 다른 표현은 다음이다. 독. *junger Dachs; grüner Junge; Gelbschnabel; Milchgesicht; Naseweis; So einer, der noch nicht trocken hinter den Ohren ist.* Vgl. R. Taylor/W. Gottschalk(1973: 189).

65) 한국어에서 ‘파랗다’가 녹색과 청색을 다 의미함으로 ‘새 파란 젊은이’는 blue와 green에 다 인용되었다. 한국인에게 ‘새 파랗게 젊은이’의 새 파란은 어느 색깔을 의미하는지 흥미롭다. 저자의 생각은 blue에 가깝게 느껴진다. ‘새 파란 하늘’, ‘새 파란 바다’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물론 ‘새 파란 들판’, ‘새 파란 보리밭’도 가능하다. 좀 더 조사해야 할 부분이다.

66) 새 파랗게가 ‘푸른 색’으로 여겨지는 것은 31)의 이유도 있지만 청년(青年)에서 이미 푸른색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67) D. Dobrovolskij와 E. Piirainen는 일본어의 青年을 여기에 넣고 있는데, 한국어의 청년은 ‘전혀 경험이 없고, 소박한’ 보다는 ‘희망’을 뜻한다.

68) 이 표현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쉐익스피어라 한다.

69) 이 경우에 형용사인 *grün*이 부정적인 감정을 표시하는 명사에 곁들여서 강조하는 기능이 주어진다고 한다. 품사로서 형용사인 *grün*은 명사에 강한 평가를 부여함으로, 부정적인 평가에 강조를 여러 번 하는 것이 된다. Vgl. C. Földes, a.a. O., 80.

질투를 느끼다'

독. *grünäugiges Monster* '질투, 선망'

독일어에서 *grün und gelb*는 흔히 함께 사용이 되고 있다. 이 두 색깔은 자연에서도 자주 동시에 나타남으로, 독일어에서 이 두 색채가 동시에 있는 표현은 두운(頭韻)이 일치됨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색깔을 동시에 나타내는 것은 항가리어에서는 독일어 보다 흔치 않고 러시아어에서는 전혀 없는 현상이라 한다.<sup>70)</sup> 영어에서도 드문 표현방식이다. 그러나 한국어에서는 '붉으락 푸르락'의 표현이 있다.

iv) 많이, 매우

영. *sb's memory is green* '죽은 후에도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이 잊혀지지 않았다'<sup>71)</sup>

독. *sich grün und gelb ärgern; sich grün und blau ärgern* '매우 화가 난다'<sup>72)</sup>

독. *grün und gelb/grün und blau vor Ärger werden* '매우 화가나게 되다'

독. *j-n grün und blau schlagen*<sup>73)</sup>

독. *j-n etw. über den grünen Klee loben* '...를 극찬하다'

독. *Ach, du grüne Neune!* '이건, 깜짝 놀랐는 걸!'

vi) 환경친화적

영. '*green housing*', *build 'green'*, *do green* '환경친화적인 집을 짓거나 혹은 그러한 환경이 지속되도록 노력하다'<sup>74)75)</sup>

70) Vgl. C. Földes, a.a.O., 84.

71) Vgl. A. Cowie/R. Mackin/I. McCaig(1983: 384).

72) Vgl. Ronald Taylor/Walter Gottschalk, A German-English Dictionary of Idioms (1973: 189). *sich grün und blau(schwarz) ärgern(fam)* 두 표현이 다 '화가 많이 난다'를 뜻한다. *j-n grünund blau schlagen(fam)*의 영어표현은 *to beat somebody black and blue*로 색채의 표현이 다르다. 한국어로는 시퍼렇게 명이 들도록 때리다가 된다. 동일한 현상을 다른 색채로 나타내고 있는 각 언어의 특징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73) 영어의 *to beat somebody black and blue*와 비교하면 흥미있는 현상이 발견된다. 독일어에는 *grün und blau*인데 영어는 *black and blue*이며 한국어는(푸른 명이 들도록) '...를 몹시 때리다' Vgl. R. Taylor/W. Gottschalk(1973: 189).

74) 특히 *green housing*이라고 말할 경우에는 다음의 세 기준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영. *green fingers, green thumb* ‘원예의 재능’<sup>76)</sup>

영. *Greenpeace* ‘핵실험, 포경반대, 환경보호를 주장하는 국제단체’

영. *Green Party* ‘서독의 녹색당’

영. *green lobby* ‘환경보호단체’

독. *die grüne Woche* ‘녹색 주간(매년 베를린에서 열리는 농업 박람회 주간)’

독. *grüne Lunge* ‘(도시내의 목적지)’

독. *grüner Plan* ‘농업을 위한 국가적 계획’

독. *der grüne Bericht* ‘연방정부의 농업정책과 식량정책에 관한 보고’

독. *das grüne Telefon* ‘환경오염에 대한 신고 전화’

독. *Grünrock* ‘녹색옷을 입은 사람(회) 산림관, 산림감시인’

한. 녹색혁명(綠色革命) ‘품종개량으로 농작물의 수확을 크게 늘리는 일’

한. 녹색연합 ‘환경보호 단체명’

vi) 색깔 자체

영. *go green(about the gills/in the face)(구)* ‘메스꺼움이나 멀미로 창백해지거나, 병든 기색이다’<sup>77)</sup>

영. *green card* ‘입국 허가증(특히 멕시코인등 외국인 노동자에게 발부하는 미국으로의)’

영. *green grocer* ‘청과, 야채를 파는 사람’

영. *green way* ‘공원을 연결하는 보행자, 자전거 전용도로, 산책로’

영. *green keeper, greenskeeper* ‘골프장 관리인’<sup>78)</sup>

영. *wearing of the green* ‘아이랜드 민족의 (웃)색깔, 아이랜드에 대한 애국

---

한다. 즉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재료를 재생된 것이거나 재생 가능한 것을 사용하면서 실내도 높은 수준의 환경의 질을 유지하는 기준을 충족시킴을 의미한다.

75) 환경친화적은 아니나 독일어로 *grüne Witwe*라는 표현이 있다. ‘회사일로 바쁜 남편 때문에 녹지가 많은 주택가에서 주로 혼자 있는 아내’를 뜻한다.

76) *green thumb*과 *green fingers*는 1900년 초에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이다. 마술같이 *green thumb*은 식물의 성장을 빠르게 한다. 원예에서 이 용어가 사용되지만, 어떤 일이나 사물을 성장하고 번성하게 만드는 능력에 적용할 수도 있다. Vg. L. Urdang/W. Hunsinger/N. Roche(1985: 48).

77) Vgl. A. Cowie/R. Mackin/I. McCaig(1983: 235).

78) 골프와 관련되는 용어로 *green*이 들어가는 표현은 이외에도 *greens fee* 등이 있다.

심을 나타내거나 아이랜드의 수호성인을 기념하는 성 패트릭 축일(3월 17일)을 위하여 초록색 옷을 입는 것”<sup>79)</sup>

독. *grüne Welle* ‘계통식 신호의 연속 청신호(일정한 속도를 달리면 차례로 청신호가 되어 멈추지 않고 달릴 수 있음)’

독. *die grüne Grenze* ‘(넘어가면 불법침입이 되는 길이 없는, 철조망이나 경비대가 없는 숲과 들판으로 이루어진) 녹색의 국경’

독. *bei Mutter Grün schlafen* (구) 노숙하다

독. *dasselbe in Grün* ‘거의 똑 같다, 똑 같은 일의 반복이다’

한. 초록은 동색이다 ; 초록은 제 빛이 좋다 ‘대체로 자기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더 어울리기 좋아하고 정다워진다는 뜻이다.’

한. 가제는 게 편이요 초록은 한 색이다(속) ‘생김새가 비슷한 것끼리는 한편 이듯이 색깔은 비슷한 색은 한가지 색으로 친다는 말’ 독일어 *das selbe in Grün*와 한국어 초록은 동색이다는 열핏 보기에는 비슷한 말로 보이나 뜻이 다르다. 독일어는 ‘이러나 저러나 비슷하다’는 느낌이 강하다. 위 한국어 속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녹색의 명도나 채도를 전혀 구별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슷한 색깔을 한 색깔로 간주하면서, 특히 다른 색이 아닌 초록을 지칭한 것도 흥미롭다.

한. 녹수(綠水) ‘푸른 물’

한. 녹수청산(綠水青山) ‘푸른 색’을 참조하라.

한. 녹의홍裳(綠衣紅裳) ‘연두저고리<sup>80)</sup>와 다홍치마’라는 뜻으로 젊은 여인의 고운 ‘옷차림’을 말한다.

한국어에서 ‘파랗다, 푸르다’는 원래 ‘풀’에서 유래한다. 이 어원에서 보면 원래는 녹색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현대의 대부분의 한국 사람에게는 파랑은 ‘청색’을 더 의미하고 있다.<sup>81)</sup>

79) *knight of the green cloth* 혹은 *green baize*(보통 초록색의 책상보, 커튼용의 올이 거친 옷감)는 노름꾼을 말한다. Vgl. L. Urdang/W. Hunsinger/N. Roche(1985: 460).

80) 녹의(綠衣)를 연두저고리로 풀이함을 보면 ‘녹(綠)’은 ‘녹수(綠水)’ 일 경우 ‘푸른 물’, 로 설명됨으로 초록, 연두, 파랑이 모두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81) Berlin & Kay(1969: 96)에서 *palahta[green?]*으로 표기하면서 한번 더 *noksayk green, changsayk blue*를 기본색의 하나로 언급하고 있다. 이 책에서 정보제공자가

## II.2. 앙케이트에서 나타난 뺄강과 노랑, 초록의 의미<sup>82)</sup>

독일어 질문의 예:

Was assoziieren Sie mit der folgende Farbe?

Rot (a) Kraft (b)Zorn (c)Konflikt (d) Gefahr (e)andere\_\_\_\_\_

Gelb (a)Niedlichkeit (b)Wärme (c)Feigheit (d)Eifersucht (e) andere\_\_\_\_\_

Grün (a) Sicherheit (b)Jugend (c)Geld (d)Friede (e) andere\_\_\_\_\_

영어 질문의 예:

When you see this color, what association first comes to your mind?

red (a)vigor (b)anger (c)conflict, battle (d)fire (e)other\_\_\_\_\_

yellow (a)cuteness, prettiness (b)warmness (c)cowardice

(d)jealousy (e) other\_\_\_\_\_

green (a)safety, secure (b)youth (c)money (d)peace (e)other\_\_\_\_\_

한국어 질문의 예:

다음 색깔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뺄강 (a)정열 (b)투쟁 (c)전쟁 (d)좋음 (e) 기타\_\_\_\_\_

노랑 (a)귀여움 (b)따뜻함 (c) 돈 (d)질투 (e)기타\_\_\_\_\_

초록 (a)자연 (b)안정 (c)젊음 (d) 평화 (e) 기타\_\_\_\_\_

단 한 사람뿐이었으므로 푸른색 *cheongsayk*<sup>o</sup> *changsayk*으로 잘못 표기되고, 오렌지색이 *tungsayk* 으로 적혀있으나 일상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한참 생각하여야 동색(銅色)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동색보다 오히려 주황(朱黃)색이 더 적합한 표현이다. 그리고 자주(紫朱)색이 자색(紫色)*casayk* 보다 더 일상적인 말이다. 또 중요한 잘못된 추측은 *hayahtha* white, *kkamahtha* black, *ppalkahta* red, *palahta* green [green?], *nolahtha* yellow 에서 *-ahtha*가 색채를 의미하는 형식의 접미사로 유추하고 있다는 것이다. “.... Korean has basic color terms(bound forms accompanied by a suffix meaning roughly ‘color’) for ‘black’, ‘white’, ‘red’, ‘green’ and ‘yellow’. Terms for pink, orange,(chesnut) brown, brown, green, blue, purple, and grey, however, are of obvious Chinese derivation, as can be observed in the following forms.” Berlin & Kay(1969: 40) 이 *-ahtha*는 강조를 뜻하는 접미사이다.

82) 독일인(독일 본 대학 재학생 49명, 아헨 지방의 대학생과 30대 25명, 35세에서 55세에 이르는 25명이 참여하였음), 미국인(미국 죠지 워싱턴 대학교에서 영어를 수강하고 있는 대학 1학년생과 강사 포함하여 100명), 한국인(경기대학교 대학생 101명)에게 설문조사를 하였음.

결과는 아래와 같다.<sup>83)</sup>

		미국인	독일인	한국인	합계
빨강	위험		45		45
	힘		22		22
	분노	27	17		44
	사랑	3	13		16
	투쟁,갈등	8	5	5	18
	불	25			25
	활력	20			20
	열정	5		89	94
	피	5			5
	전쟁			3	3
	기타	7		4	11
합 계		100	102	101	303
		미국인	독일인	한국인	합계
노랑	따뜻함	52	47	38	137
	질투	4	38	1	43
	비겁함	13	6		19
	귀여움	15	1	57	73
	행복한	3			3
	쾌활	2			2
	돈			1	1
	무용답	2	5		5
	기타	9	2	4	15
합 계		100	99	101	300
		미국인	독일인	한국인	합계
초록	평화	33	37	11	81
	자연	10	18	57	85
	안전	13	15	26	54
	청소년		14		14
	희망		12		12
	젊음	6		3	9
	풀	4			4
	돈	22	2		24
	기타	12	1	4	16
합 계		100	99	101	300

83) 빨강의 의미에 대하여 미국인은 위에 표기한 이외에 기타로 장미 1, 밝음2, 떨기1을 들고 있다. 독일인은 기타에 자유의지 1, 맹고1, 여자1, 공격성1, 움직임1을 적고 있다. 숫자가 많은 것은 두 문항을 동시에 표기한 경우에 둘 다 적었기 때문이다. 한국인은 적은 경우가 없음. 노랑의 의미에 미국인은 기타로 해바라기 1, 심한 불쾌감 1, 정열1, 정확1, 아무것도 없음1, 양보1, 달콤함1 등이 있으며 독일인은 기타에 기쁨1, 거리1, 친절1, 성공1, 빛1, 우정1, 생명력을 들고 있다. 초록은 미국인은 환경1, 달콤함1, 채소1, 봄1, 신선한1, 나무1, 따뜻함1, 큰 욕심1을 적고 있으며 독일인은 조화1, 자연스러움1, 봄1, 고요함1, 즐거움1, 무용답 2이다.

### III. 결론

Berlin & Kay의 조사에 의하면 빨강은 ‘피, 혈액(血液)’에서 나온 것으로 되어 있다. 대부분의 언어에서 피의 색깔로 간주되는 빨강의 의미는 매우 오래되었다.<sup>84)</sup> 피에서 유래하였으므로 빨강은 전쟁의 색깔 그리고 심판의 색깔이었다. 또한 이 붉은 색을 입는 사람은 큰 권력에 있게 된다. 그리하여 최고의 심판관, 영주들이 이 색을 즐겨 입었으며, 빨강은 원시민족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것은 마법과 방위(防圍)의 색깔이다. 많은 경우에 흥분, 수치 혹은 분노, 또한 중대함의 상징으로 나타난다. 빨강은 동시에 힘, 혁명, 중요한 눈에 띠는 색깔로서 상징적인 가치를 지닌다. 빨강은 나아가 위험 특히 불의 위험이 임박함을 나타낸다. 그래서 자동차의 경고등(警告燈)과 정지등, 불 자동차의 색깔, 소화전의 색깔이 붉은 색이다. 또한 많은 경우에 빨강은 내적인 자극 예를 들면, 화, 분노, 수치를 느끼는 사람들의 얼굴색깔이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붉은 색이 해당된다. 중세의 사랑의 상징에서 빨강은 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sup>85)</sup> 붉은 장미는 사랑을 나타내는 꽃이다. 불을 암시하면서 사랑의 불꽃, 뜨겁고 불타는 사랑이라는 표현은 독일어에서도 한국어에서도 다 통용된다. 이 색깔이 자유의 상징을 의미하게 된 것은 불란서 혁명 당시에 자코뱅당 당원들이 붉은 색을 입은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불교에서 빨강은 탄생을 의미하며 중국인들은 행운과 정열의 색으로 빨강을 생각한다. 공산주의자와 전쟁을 겪은 한국에서는 빨갱이라면 공산주의자를 의미한다. 여전히 요즈음의 한국신문에서 색깔논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모두 공산주의를 의미하는 빨강에서 연유한다.<sup>86)</sup> 2002년 월드컵을 개최하면서 「붉은 악마」라는 응원단이 등장을 했다. 이전의 한국인이라면 상상하기 힘든 붉은 물결이 시청 앞 광장을 뒤덮었다. 이 경우의 빨강은 다른 외국인에게 어떻게 비쳤을

84) Gottfried Rottmans(1967: 38).

85) Gottfried Rottmans(1967: 38).

86) 북한에서는 붉은 색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한다. 붉은 청년근위대, 적기기(노래), 붉은 심장들(무용극)등 붉은 색이 주된 색깔이라고 할 수 있다. 탈북자 43명에게 북한하면 떠오르는 색깔이 무엇이나를 물었을 때 32명이 붉은 색이라고 했다(조선일보 10/09/01). 붉은 색은 1917년 레닌의 10월 혁명의 성공 이후 사회주의 혁명의 상징, 공산주의를 뜻하게 되었음.

까? 한국인은 빨강을 ‘열정’으로 생각하고 환호하고 있는데, 독일인은 열정보다 ‘위험’을 미국인은 ‘분노’를 느끼고 있지는 않았는지?

빨강이 상징하는 좋은 면은 힘, 따뜻함, 용기, 에너지, 행동, 삶의 긍정, 기쁨, 정열, 시도하는 정신과 자유를 사랑하는 마음이며, 나쁜 면은 투쟁, 재해, 탈취, 소요, 잔혹, 죄 등을 의미한다. C. Földes(1991: 83)는 검정다음으로 빨강은 가장 오래된 생산적인 색깔이라고 한다. 즉 검정 다음으로 빨강의 숙어가 많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독일어, 러시아어, 헝가리어의 색깔용어가 있는 숙어의 조사에 따른 결과이다.<sup>87)</sup> 빨강은 이 세 언어에서 자유, 삶의 기쁨의 상징이다. 이러한 상징적인 내용이 세 언어의 해당 관용어에서 다소간에 나타나고 있다.<sup>88)</sup> 그러나 H. Zollinger<sup>89)</sup>는 ‘심리적으로 순수한 빨강은 단색의 빨강이 아니고 빨강과 약간의 노랑이 혼합된 것이다’ 이것은 아마도 빨강/노랑의 혼합은 단색 – 즉 생리학 적으로 기본인 빨강- 보다는 더 심리적으로 두드러지기 때문일 것으로 보고 있다. N. McNeill<sup>90)</sup>은 시간이 흐르면서 일본어에서 빨강의 초점은 유럽어의 ‘보편적인’ 채도에 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으며 이것은 아마 일본이 서양과 접촉을 가진 이후에 유럽문명의 문화적인 영향에 의한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한다. 향가리어에 있는 빨강에 해당되는 2 가지 용어와 러시아어의 2가지 파랑에 해당되는 단어는 이 두 나라 사람들의 시각적인 성질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문화적인 요소에 기인한다고 생각되고 있다.<sup>91)</sup>

노랑은 ‘질투, 시기심, 불신, 비겁, 증오’를 뜻한다. 노랑은 가장 밝은 색깔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상징에서 노랑은 나쁘게 간주된다. 독일어의 *grün und gelb vor Neid*가 한국어로 질투로 눈앞이 깁깝하다로 번역됨은 재미있는 대조를 이룬다. 영어에서 노랑은 우선 ‘비겁함’을 연상한다. 인도에서 노랑은 성스러운 색으로 승려들의 의복의 색이다. 반면에 한국어 관용어에서 노랑은 노랭이에서처럼 ‘인색한’을 의미한다. 하늘이 노래지다의 경우는 그러나 ‘어지럽다(충격적인 소식을 듣거나, 건강이 갑자기 나빠져서)’를 뜻한다. 한국어에서는

87) Vgl. C. Földes, a.a.O., 78.

88) Vgl. C. Földes, a.a.O., 83-84.

89) Vgl. Zollinger(1979: 3).

90) Vgl. McNeill(1972).

91) A. Moss(1989: 319).

노랑을 의미하는 또 다른 한문표현인 黄(黃)색이 포함된 숙어도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미국인 교수에 의하면 노랑의 의미는 ‘재미있는’, ‘밝은’에 있다고 설명한다. 이에 반대되는 ‘심각한’, ‘단조로운’은 회색, 검정, 짙은 파랑이 나타내며 노랑의 부정적인 측면은 ‘아픈’, ‘오줌’을 뜻한다고 말했다. 또한 밝은 색깔은 야하다(loud)고 단언했다.

초록의 주된 상징의미는 ‘정신적인 미숙함’과 동시에 ‘젊음, 성장, 부활’이다. 이중 ‘미숙한, 경험 없는’은 거의 모든 언어에 다 나타나고 있다. 공통점은 색채상징에만 근거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은 식물이다’라는 개념적인 은유에 근거한다고 말하고 있다. 종교적인 면에서 볼 때, 특히 기독교에서 녹색은 이전에는 성령의 상징적인 형상으로 여겨졌으나, 지금은 영향력을 잃었다고 할 수 있다.<sup>92)</sup>

빨강의 경우 색채이미지와 언어상징과 특별한 연관이 없어 보인다. 관용어의 의미보다는 오히려 문화상징이 색채 이미지에 더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다.

### <빨강>

언어에 나타난 의미	문화상징	색채연상		
		미국인	독일인	한국인
많은(독,영,한)	불의색	분노(27)	위험(45)	정열(89)
중요한,특별한(독,영)	성령의상징	불(25)	힘(22)	투쟁(5)
좋은,아름다운(독,영,한)	지옥	활력(20)	분노(17)	전쟁(3)
건강한(독,영,한)	전쟁과죽음	다툼(8)	사랑(13)	기타(1)
나쁜(독,영)	공산당	열정(5)	다툼(5)	
무의미한,공식적인(영)	경고	괴(5)	기타(7)	
야간(영)		사랑(3)		
여자(한)				
공산주의(독,영,한)				

- 특별히 두드러지는 현상은 빨강에서 ‘정열’을 연상하는 한국인이 많은 것이다(89명) 문화상징인 ‘불’을 연상하는 미국인은 25명이나 독일인과 한국

92) Dmitrij Dobrovolskij & Elisabeth Piirainen(1997: 151).

인이 한 명도 없으며 독일인은 오히려 '위험'을 빨강에서 연상하고 있으며 '힘'을 연상하는 사람도 22명이다.

- 언어에 나타나는 '중요한, 많은, 건강한, 나쁜'등의 의미가 색채연상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다. 또한 문화상징인 '힘, 혁명, 위험'등 보다 '정열'을 연상하는 사람이 많다. 독일인과 미국인을 합쳐서 분노가 44명에 달하는 것도 특기할 만하다.

### <노랑>

언어에 나타난 의미	문화상징	색채연상		
		미국인	독일인	한국인
질투하는(독)	질투	파뜻함(52)	파뜻함(47)	귀여움(57)
나쁜(영,독,한)	시기심	귀여움(15)	질투(38)	파뜻함(38)
비겁한, 겁많은(영)	불신	비겁함(13)	비겁함(6)	질투(1)
경고(영,독,한)	나쁜	질투(4)	귀여움(1)	돈(1)
중요한(영,독,한)	비겁	행복한(3)		
신출내기(독)	중오	쾌활(2)		
인색한(한)	경고			
색깔 자체(독,한)				

- 독일인이 노랑에서 질투를(38명)를 연상하고 있음은 언어에서 영향을 받고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영어에서 green with envy가 있음에도 초록에서 질투를 연상하는 사람은 미국인이 한 명이다. 오히려 노랑에서 질투를 연상하는 미국인은 4명이다. 한국인은 1명이다.
- 노랑에서 비겁함을 연상하는 사람은 미국인(13명), 독일인(6명)이 있으며 한국인은 한 명도 없다. 언어상징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 파뜻함은 태양, 색깔 자체가 주는 인상에서 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인(47명), 미국인(52명), 한국인(38명)이 파뜻함을 노랑에서 연상하고 있다.
- 문화상징과 언어상징 양쪽에 다 있는 '경고'를 노랑에서 연상하는 사람은 없다.

## &lt;초록&gt;

언어에 나타난 의미	문화상징	색채연상		
		미국인	독일인	한국인
좋은(영)	희망	평화(33)	평화(37)	자연(57)
덜익은(영,독,한)	부활	안전(13)	자연(18)	안전(26)
질투(영,독)	영원한생명	자연(10)	안전(15)	평화(11)
많이, 대단히(독)	건강	젊음(6)	청소년(14)	젊음(5)
환경친화적(영,독,한)	허용된통과	풀(4)	희망(12)	
색깔자체(영,독,한)	질투	돈(2)	돈(2)	
	독		기타(7)	

- 평화는 언어에 나타난 의미도 아니며, 문화상징에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 나라 사람들 모두 초록에서 '평화'를 연상하고 있다.
- 안전과 안정은 교통신호와 연관이 있다.
- 독어와 영어 두 언어의 표현에서 초록은 '질투'와 함께 사용되나 노랑과 달리 질투와 연관되고 있지 않다.

빨강과 노랑, 초록이 숙어에 나타난 의미와 앙케이드를 통하여 드러난 색깔의 이미지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의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첫째, 언어상징은 색깔 이미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저자의 [색깔의 상징의미(I)]의 결론이 빨강과 초록의 경우에서도 유효하나, 노랑의 경우 질투(독일인 38)를 연상하는 것은 언어상징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다. 둘째, 이 세 가지색에서도 언어상징보다 문화상징이 색깔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언어상징의 이해에는 문화의 인식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별히 두드러지는 것은 미국인, 독일인, 한국인들 간에 색채이미지에 대한 뚜렷한 차이점이다. 특히 한국인들의 대답이 다양하지 못함을 알 수 있으며, 사회학적으로 한국인의 특성을 밝혀 보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듈다. Whorf의 <언어 결정론> 즉, 언어사회가 다르면 현실을 언어적으로 파악하는 방법도 다르며, 모든 개인은 자기가 성장하고 있는 언어사회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세상을 인식할 수 있으며 그 한도 안에서 생각할 수 있다는 주장에 다시 동의하게 된다.

### 참고문헌

- 김진우 (1996) : 언어와 문화, 중앙대학교 출판부
- 브룬스, 마가레테 (2000) : 여덟가지 색으로 풀어본 색의 수수께끼(옮긴이), 조정 옥), 세종연구원.
- 이남덕 (1985) : 한국어 어원연구 III,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조영수 (2002) : 한국어, 독일어, 영어에 나타난 색깔의 상징의미(I) -하양과 검정, 독일문학 제84집, 43권 4호 S.513-537.
- 쿠퍼, 미미/매튜, 엘린 (2002) : 컬러 비즈니스(Color Smart) (옮긴이, 안진환), 오늘의 책.
- 헬러, 에바 (2002) : 색의 유혹, 재미있는 열세가지 색깔 이야기 I, II(옮긴이, 이영희) 예담.
- Butler, Linda/Penelope, Julia (2001) : The American Heritage dictionary of Idioms for Students of English, Adapted form The American Heritage Dictionary of Idioms by Christin. Ammer, Houghton Mifflin Company.
- Cage, John (1993) : Color and Culture, Practice and Meaning from Antiquity to Abstraction, A Bulfinch Press Book, Little, Brown and Company.
- Cage, John (1999) : Color and Meaning, Art, Science, and Symbolism,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Casson, Ronald W. (1994) : Russett, Rose and Raspberry: The Development of English Secondary Color Terms. In: Journal of Linguistic Anthropology, June, Volume 4, Number 1 S. 5-21.
- Cowie, A.P/ Mackin, R/ McCaig, I.R (1983) : Oxford Dictionary of Current Idiomatic English, Oxford University Press.
- Damen, Louise (1987) : Culture Learning:The Fifth Dimension in the Language Classroom,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 Dobrovolskij, Dmitrij & Piirainen, Elisabeth (1997) : Symbole in Sprache und Kultur, Studien zur Phraseologie aus kultursemiotischer Perspektive, (Studien zur Phraseologie und Parömiologie 8), Bochum.
- Eastman, Carol M. (1975) : Aspects of Language and Culture, Chander & Sharp Publishers, Inc.
- Földes, Csaba (1991) : Fabbezeichnungen als phraseologische Strukturkomponenten im Deutschen, Russischen und Ungarischen In: Palm(Hrsg.),

S.77-89.

- Goethe, Johann Wolfgang (1975) : Naturwissenschaftliche Schriften I, Goethe Werke Band 13, Hamburger Ausgabe in 14 Bänden, Erich Trunz(Hrsg), Verlag C.H. Beck München,Siebente, überarbeitete Auflage.
- Gripper, Helmut (1965) : Die Farbe als Sprachproblem In:Sprachform Zeitschrift für angewandte Sprachwissenschaft(I).
- Hartman, Taylor (1998) : The Color Code, Simon & Schuster.
- Hill, Jane/ Hill, Kenneth (1997) : Culture Influencing Language: Plurals of Hopi Kin Terms in Comparative Uto-Aztecan Perspective In: Journal of Linguistic Anthropology, vol.7, No 2, S. 166-179.
- Hofstede, Geert (1986) : Cultural Differences in Teaching and Learning, In: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10, Number 3, S. 301-320.
- Kay, Paul/Kempton, Willett (1984) : What is the Sapir-Whorf Hypothesis? In: American Anthropologist, S. 65-79.
- Lucy, John/Shweder (1979) : Richard, Whorf and His Critics: Linguistic and Nonlinguistic Influences on Color Memory In:American Anthropologist[81 ], S. 581-615.
- McNeill, N.B. (1972) : Colour and colour terminology, Journal of Linguistics 8, S. 21-33.
- Merten, Stephan (1994) : Wo Sprach- und Kulturwissenschaften einander berühren, In: Wirkendes Wort 3, S. 536-553.
- Moss, A.E (1989) : Basic Colour Terms: Problems and Hypotheses In: Lingua 78, S. 313-320.
- Pachzolay, Gyula (1997) : European Proverbs, In: 55 Languages with Equivalents in Arabic, Persian, Sanskrit, Chinese and Japanese, Veszprem, Hungary.
- Rottmann, Gottfried (1965) : Das Farbwort "rot" im britischen un-amerikanischen English(I) In: Lebende Sprachen(12); S. 38-41, DasFarbwort 'red' im britischen und amerikanischen Englisch(2), In: Lebende Sprachen(12); S. 71-72.
- Schmidt, Peter (1965) : Goethes Farbensymbolik, Untersuchungen zu Verwendung und Bedeutung der Farben in den Dichtungen und Schriften Goethes, Philologische Studien und Quellen, Heft Binder,W/Moser,H/Stackmann,K/Stammler, W(Hrsg), Erich Schmidt

Verlag, Berlin.

- Smith, J. Jerome, Furbee Louanna, Maynard, Kally, Quick,Sarah, and Ross, Larry, Salience Counts (1995) : A Domain Analysis of English Color Terms, In: Journal of Linguistic Anthropology, Volume 5, Number 2, S. 183-202.
- Stedje, Astrid (1990) : Rosen, Lilien und Veilchen sprechen , zur Semiotik der Blumen in Deutscher Phraseologie In: Europhras 90, Akten der internationalen Tagung zur germanistischen Phraseologieforschung, Aske/Schweden 12-15, Juni, Palm,Christine (Hrsg), Uppsala 1991.
- Taylor, Ronald/ Gottschalk, Walter (1973) : A German-English Dictionary of Idioms, Idiomatic and Figurative German Expressions with English Translations, 4. Auflage, Max Hueber Verlag München. Urdang.
- Laurence/Hunsinger, Walter W./Roche Nancy La(1985) : Picturesque Expressions: A Thematic Dictionary, Second Edition, Gale Research Company.
- Zollinger, H. (1979) : Correlations between the neurobiology of colour vision and the psycholinguistics of colour naming. In: Experientia 35, S. 1-8.

### **Zusammenfassung**

#### **Zur Farbensymbolik im Deutschen, Englischen und Koreanischen - Rot, Gelb und Grün -**

Cho, Young-Soo(Kyonggi Univ.)

In dieser Arbeit wird versucht, einen weiteren theoretischen Rahmen für die Farbensymbole( Rot, Gelb und Grün) in der deutschen, englischen und koreanischen Sprache, vor allem in Idiomatik weiterzuentwickeln. Rot und Grün sind in diesen Sprachen reichlicher als Gelb vertreten.

Die symbolische Bedeutung von Rot ist besonders ambivalent. Es ist die Farbe der Gesundheit, aber auch die Farbe des Blutes, Krieges und Todes. Rot ist in den untersuchten Sprachen als 'sehr', 'gut', 'gesund' oder 'schlecht' belegt. Rot zeigt aber

einzelnsprachliche Eigenschaften. Im Koreanischen ist Rot symbolisch mit 'Frau', im Englischen mit 'Bürokratismus' verbunden.

Gelb hat auch widersprüchliche Symbolbedeutung .Es ist die Farbe der Frühlingsblumen, der Sonne und des Lichtes. Aber Gelb kann die Farbe von 'Neid, Eifersucht' oder 'feige, schlecht' sein. Grün ist die wichtigste Farbe der Natur. So ist diese Farbe symbolisch mit 'gut', 'unreif', 'sehr, viel', 'Wachstum und Gedeihen' assoziiert.

Durch Vergleich und Analyse der Farbensymbole in diesen drei Sprachen und durch Resultat der Antwort auf Fragenbogen, an denen 99 Deutschen, 100 Amerikaner und 101 Koreaner teilnahmen, zeichnen sich folgende Ergebnisse ab. Sprachsymbole von dieser Farbe hat auf die Farbenwahrnehmungen von diesen Leuten nicht direkte Einflüsse ausgeübt. Rot assoziiert in 89 Koreanern und 5 Amerikanern 'Leidenschaft': Gelb in 52 Amerikanern, 47 Deutschen und 38 Koreanern 'Wärme': Grün in 33 Amerikanern, 37 Deutschen und 11 Koreanern 'Frieden'. Im Englischen und Deutschen zeigt sich die Assoziation von Gelb mit 'Neid, Eifersucht', was mit kulturellen Vorstellungen übereinstimmt. 38 Deutsche und 4 Amerikaner geben für Gelb die Symbolbedeutung 'Neid' an. Hier bin ich mit sprachlichem Determinismus von Whorf-Hypothese einverstanden: Verschiedene Sprachgemeinschaften erfassen die Wirklichkeit in ganz verschiedener Weise. Sprachsymbol und Kultursymbol scheinen an die Farbenwahrnehmungen von untersuchten Leuten anzuknüpfen.

[검색어] 색깔상징, 빨강, 노랑, 초록, 언어 결정론, Whorf의 가설  
Farbensymbol, Rot, Gelb, Grün, sprachlicher Determinismus,  
Whorf-Hypothese

조영수

443-76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산 94-6

경기대학교 독어독문학과

yscho@kyonggi.ac.kr